

진안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보통재 도로 개량 반드시 필요”

4일까지 요양·정신 시설 대상자 124명 1차 접종 마무리

진안군은 2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백신 접종의 주인공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원장 유정순(62)씨다. 유 원장은 1차 접종 대상인 만65세 이하 요양시설 근무자에 해당한다. 이번 첫 접종에 사용한 백신은 지난 25일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시설에 직접 방문해 접종을 시행했다. 먼저 유 원장은 담당 의사의 예진을 받고 접종을 한 후 30여분 가량 반응 관찰이 이뤄졌으며 대상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백신 접종을 이어나갔다.



진안군은 2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첫 백신 접종의 주인공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원장 유정순 씨다.

군은 접종을 앞두고 지난 1월 구성된 '진안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단장 나혜수 부군수)'은 업무 매뉴얼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였으며, 응급 사태에 대비하여 119 구급대원이 대기하는 등 안전한 분위기에서 접종이 이뤄졌다. 이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과 마이숲 요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1차 대상자 124명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대상자(요양 및 정신 시설 종사자·입소자 중 만 65세 미만) 125명 중 124명이 접종에 동의하고 나서 등 백신 접종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정순 원장은 접종 후 “진안군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던 지난 14개월이 생각나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진안군의 빠른 백신 확보와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1차 접종을 시작으로 2분기 대상(65세 이상 군민,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노인재가 복지시

설, 3분기 대상(소방, 경찰 등 필수인력, 보육시설 종사자 및 18~64세)에 대한 순차적인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해당 분기에 접종을 받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기별 접종 대상자들은 적극적인 접종을 부탁드린다”며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새봄 기운 받아 3월도 힘차게 나아가 보자”

황인홍 무주군수, 월례조회서 코로나19 방역·예방접종 철저 등 주문

황인홍 무주군수는 3월 월례사에서 '희망'을 강조하며 생동감 넘치는 새봄의 기운을 받아 3월 한 달도 힘차게 나아가 보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예방접종 철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산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주문했다.

황 군수는 “코로나19 발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지인과의 만남과 방문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방역지침 역시 철저히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또 요양 시설에 대한 접종을 시작

로 11월까지 대상자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황인홍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 기능순찰 강화로 불철 산발을 막고 ▲분야별 현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 가져

무주군은 2일 접동생물문화체험관에서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근로자 등 84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근로자 교육을 받고 각 사업장별 운영 계획을 공유하

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근로자들은 산림자원의 가치 향상, 생태적 안정성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 가꾸기, 안전사고 및 산림재해 예방 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오늘 의 우리 군을 있게 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그런 산림을 가꾸고 지키며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일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국회 방문해 사업 필요성 피력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도 26호선(진안부귀~원주소양간) 중 사고다발 구간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통재 도로(터널)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사업 확정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 정책성 평가 중에 있는 가운데 전춘성 군수는 지난날 26일 또 다시 국회를 방문하여 진심어린 국도위 위원장, 우원식 기재위 위원, 안호영 의원 등을 찾아 사고다발구간인 보통재 터널사업이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로 인하여 도로 발달면 붕괴와 급커브구간의 설계속도(80~70m/hr)보다 미달된 최소곡선반경과 완화곡선으로 인한 사고 다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14개 보험사 교통사고처리현황(2009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소태정 구간의 총 사고 건수는 3,620건(905건/년)으로 차 단독사고 및 차와 차 사고로 사망자 발생사고 26건 등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교통사고 발생지로 악명이 높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2007년부터 소태정 터널개설 타당성조사(기준도로 문제점분석)자료를 통하여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시작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군은 현재 진행중인 기재부 일괄 예산 통과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최종 반영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 군수는 “이번 심사는 경제성분석(비용/편익)보다는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도로의 안정성 등 종합평가(AHP)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직접 나서 적극 설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도26호선인 진안부귀~원주소양구간은 1997년 무주동계유내비서이드 대회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개설된 노선으로 보통재 구간은 설계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터널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예산부족으로 대절도,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은 물론 도로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원주 소양 구간의 도로 개량(터널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이번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평생학습관 개관·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이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오는 4일부터 프로그램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 강좌는 부동산경매투자과정,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비밀기 등 5개 과정으로 각 과정당 인원은 12~25명을 모집하며, 강좌 별로 6~15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거점별 운영 방식으로, 장수읍은 평생학습관, 장계면은 군립도서관에서 운영된다.

도서관에서도 불학기 강좌(3~5월)가 운영된다.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6개소에서는 '내가 바로 다독대출방', '버킷리스트 가족 북' 등 21개 강좌가 진행되며 각 과정당 20명 내외로 참여가능하다. 강좌 참여 신청은 장수군청 통합예약시스템(<https://vo.la/tWYr>)을 통해 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팀(063-350-2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온라인 개최

제17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장 남귀현)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축제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 판매 행사(8일~12일)와 온라인 축제(12일)로 진행되며, 8일 오전 9시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고로쇠 수액 2+1 한정 수량 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이 기간에 고로쇠 수액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대체식품 제공

무주군이 가장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대체식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 휴관이 지속되면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은 무료경로식당의 무료 급식대상을 위한 대체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700만원(도비 93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어르신들의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대체식품 지원은 어르신의 영양결핍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직접 조리된 음식과 상할 우려가 적은 가공식품으로 차린다. 즉, 국, 조림류, 절임류 등이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 선정하고 월 2회 100가정으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찾아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취임식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2일 코로나19로 자원봉사단장과 업무 협약기관장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이사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용진 이사장이 이임하고, 이재동(진성)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용진 이임 이사장은 “진안군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늘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재동 신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노력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크게 발전해 왔다”며 “그 동안 자원봉사자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로 진안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김광수 군의장과 군의원이 참석해 이사장이·취임식을 축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